**빛처럼 별처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저의 경우, 제 이름을 예전엔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 ‘류광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요. ‘루광현’이라 하기도 하고, ‘류과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유광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이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 믿고나서이겠지요. ‘빛 광’자에 ‘어질 현’자, “빛으로 어질게 한다”는 뜻입니다. 듣고보니 이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진리의 빛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 주위 세상을 지혜롭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 이름 대충 짓는 부모는 별로 없지요. 저희 딸 이름이 ‘한별’인데, 이 이름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인생 살라고, 그처럼 아름다운 하나의 별이 되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지요.

저희 가족 이름 자랑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들 좋은 이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별로인 이름 갖고 있는 사람도 멋진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별로인 이름조차 멋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과 별도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 등 여러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지요. 그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잘 안 비쳐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특별한 해결책은 없겠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받아 잘 비추며 살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어리석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보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순 있어도, 맘먹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 대부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남들 사는 대로 살다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엔 지혜로운 사람들로 가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인 것만 같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총리 하나를 못 세워서 그렇게 골치를 썩이다가, 결국 세월호 사고에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한 총리를 유임시키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온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인물을 알아볼 만한 지혜가 지금 위정자들 속에 없기 때문인지, 그 중 어느 쪽이라도 오늘 우리 사회가 지독한 지혜의 가뭄을 겪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고, 출세를 위한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은커녕 애굽 사회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처럼 특별한 인생으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요셉의 꿈 해석과 정책 제안을 들은 바로가 놀라움 속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창41:38-40)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 대해 꽤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다음과 같은 말로 뿌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39:9). 또한 감옥에 있던 두 관원장이 전날 밤 꾼 꿈 때문에 번민하자 그는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40:8).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해 왕궁에 불려갔을 때에도 그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41:16).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머리가 더 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을 보통 똑똑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을 두고 곧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예배 시간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혹시 이 둘의 차이를 아는지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도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머리의 영리함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 즉 사물의 도리나 선악 등을 잘 분별하는 마음의 능력과 관련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순간 얕은 꾀로 남보다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지 몰라도 결코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은 그 순간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37:9).

그런데 이 지혜는 가만이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며 구해야 할 것, 또한 움직이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지혜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을 뜻하는 영어단어 Philosophy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혜와 연관된 동양의 개념으로는 道(도)라는 것이 있지요? 道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걸어가며 생각하는 일, 그리고 그 삶의 길에서 건져올려진 지혜를 말합니다. 서양인의 사고에서든 동양인의 사고에서든 지혜는 삶 속에서 열심히 찾고 구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바로 이해하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딤후3:15).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구하는 사람들이자, 삶 속에서 그 참 지혜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깁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하여 지혜롭게 사십시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애쓰십시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1:21).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1:19), 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3:19).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6).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2:7),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지혜입니다 (2:9). 그런데 감추어져있던 이 지혜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2:10).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2:10,12). 주의 뜻과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3-16).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하다고 합니다. 즉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를 사랑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지혜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고, 따라서 선한 열매를 가득 맺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을 떠올려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자들이란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번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저도 모르게 소리칩니다.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눅11:2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11:28).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씀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3:18-19)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 지혜자들보다 십 배나 나은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여 죽이려 할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단2:47).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단 6:26). 이것이 누구 입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나라 왕들이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지혜 있는 자’를 ‘이해하는 자’로 번역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것은 그분이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지혜롭다 여겨지던 사람이 사람들의 핍박과 미혹을 당하며 몰락하기도 합니다 (단11:34).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연단을 받아 마지막 때까지 정결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 (단11:35).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의 몸은 후패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영광스런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12:2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지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은 그 다음세대를 위한 길잡이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성령 안에서 빛처럼 살고 별처럼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하며,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잘 비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과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